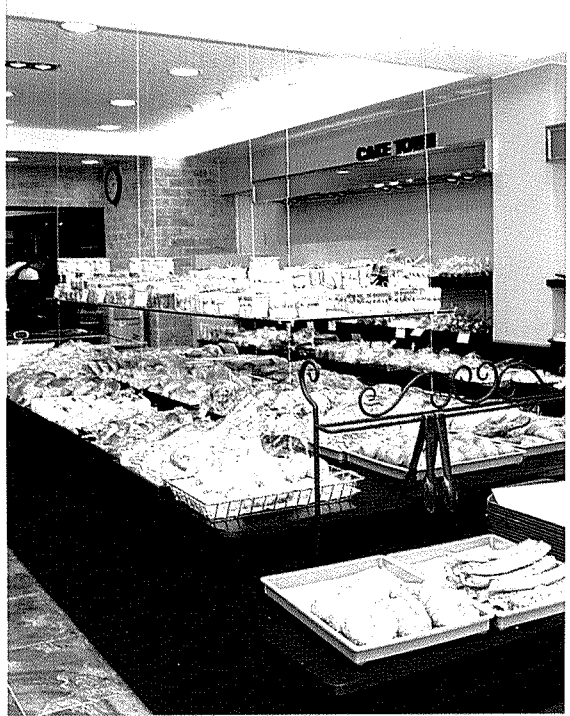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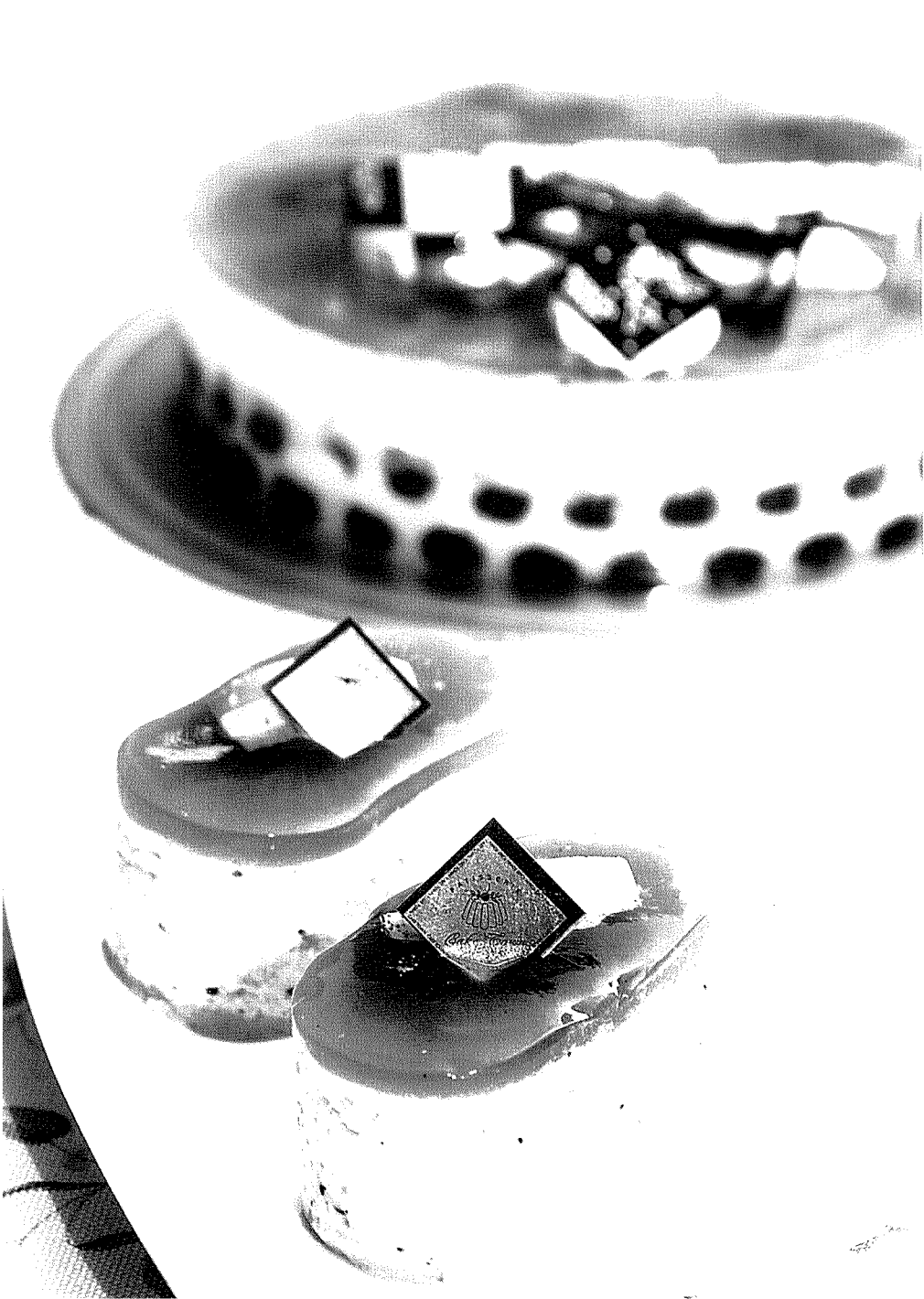


3 4



- 1 밝은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오는 케익타운의 외관. 컬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강렬한 빨간색을 강조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 2 전면에서 한발 들어와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점포 전체 분위기가 넉넉해 보인다. 케익타운은 앞으로 이 발코니 부분을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3 키위푸레와 생크림이 어우러져 새콤 고소한 맛이 일품인 '키위 무스'. 원형 2호 2만3천 원, 프리 가또 2천800원.
- 4 요즘 제과점 인테리어의 경향은 '입체감'이다. 천정에 줄을 연결해 선물용 쿠키 선반을 만들었다.
- 5 페이스트리에 밤을 넣고 각둑살기해 뭉쳐 만든 '밤 데니시 페이스트리'. 개당 2천 원. 알뜰살뜰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 6 새로 바뀐 케익타운 2층에는 즉석 샌드위치를 위한 조리코너가 마련돼 있다. 샌드위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소스와 고기 패티에 차별화를 꾀했다. 치즈, 피클, 양파, 양상추가 어우러진 '칠리샌드' 3천500원.
- 7 벽면은 메운 원색의 일러스트가 활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평상 스타일의 좌석으로 고객의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했다.

제2의 탄생 '평택 케익타운'

Cake Town! The Second Story

제과점 경기가 IMF 시절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요즘, 평택 케익타운은 다시 한 번 변화를 시도했다. 'The Second Story'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7월 16일 몰라보게 새로워진 모습으로 '제2의 탄생' 을 맞이한 케익타운을 둘러본다. 글:김미선 기자·사진:전문식

업계에서 전설처럼 통하는 얘기가 하나 있다. 푹 떨어진 매출 탓에 모두가 한숨만 내쉬던 IMF 시절 평택 케익타운은 직접 개발한 '만득이핫도그' 하나로 매일같이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당시 하루에 2천500개씩이나 팔릴 정도였으니 전설로 남을 만도 하다. 김성환 대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울 때일수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제과점 경기가 IMF 시절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는 요즘, 케익타운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Cake Town! The Second Story'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7월 16일 1988년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몰라보게 새로워진 모습의 '제2의 탄생' 을 맞았다.

이번 리뉴얼의 주제는 단연 '레드(Red)' 다.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빨간색은 우리나라 젊은 층을 대변하는 색깔이 됐다. 평택시내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다는 중앙로에 위치한 케익타운은 젊은 고객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과점 메인컬러로 통하는 '갈색' 을 과감히 포기했다. 빨간색은 식욕을 돋우는 컬러인데다가 인테리어 전체에 포인트를 주어 생동감마저 준다. 내부를 마감하는 밝은 색 벽돌과 흰색 천정은 메인컬러 '빨간색' 을 더욱 강조해주고 깔끔한 맛을 더한다.

케익타운 2층 카페테리아는 창을 시원하게 넓히고 벽면을 원색으로 꾸며 모던한 느낌을 강조한다. 특히 창가 좌석은 소파나 의자가 아닌 폭신평신했던 평상 스타일로 꾸며 평택 시내에 벌써부터 입소문이 자자하다. 케익타운을 찾은 고객들은 "평택 시내를 내려다보며 내 집 안방처럼 두 발 쪽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됐다"며 무척 좋아한다고.

'품질이 떨어지면 부자지간에도 거래가 끊긴다' 는 사훈은 1988년 창업한 이래 줄곧 케익타운을 지켜온 단 하나의 신념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케익타운은 품질에 대한 확고한 전통은 유지하면서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힌 제품을 많이 선보였다. 케이크 데코레이션은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만 살리는 방식의 변화를 주고, 키위·초콜릿·호두 등 지역고객의 입맛에 잘 맞는 양과자 제품으로 평택지역 입맛 바꾸기에 나선 것도 이번 리뉴얼의 의미 있는 변화다.

케익타운의 3층은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제과점은 명망 있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김성환 대표의 꿈이자 철학으로 이번 리뉴얼을 통해 평택 케익타운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

연락처 031)652-3314 찾아오는 길 평택역과 평택경찰서 사이길